

[2013 이화자기계발해외탐사]

이화여자대학교 축구동아리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영국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팀명: UK로 Kick off!!

목 차

1. 서론	1
2. 연구방법	
1) 사전 탐색조사	1
2) 기관방문조사 및 현지 여자축구동아리활동 체험	2
3. 영국과 한국의 대학여자축구동아리 비교분석	
1) 대학교 내 동아리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	4
2) 사회적 지원:BUCS(British University&Colleges Sports)	7
4. 이화여자대학교 축구동아리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1) 축구 동아리 운영현황	8
2) 대학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 방안	9
5. 기대효과 : 축구동아리 활성화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 증진	12
6. 결론	13
7. 참고문헌	13

1. 서론

스포츠 참여에는 성별이 없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

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아리를 통해 축구에 직접 참여하는 여성 중 한 명으로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여자가 축구를 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실제로 우리나라 20대들이 지니고 있는 축구 참여에 대한 인식과 성별에 따른 스포츠 참여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인원 155명(남 76명, 여 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축구를 하고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미지와 함께 각 학생의 전공을 묻는 문항에서 전공을 알 수 없다는 중립적인 의견은 155명 중 16명(약 10%)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스포츠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 응답자는 요가(50명)가 1순위로, 남성 응답자는 축구(70명)가 1순위로 나타났다.¹⁾ 경험적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에서 남성들의 축구 참여는 다소 보편적인 스포츠 참여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반면, 여성들의 축구 참여는 생소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주제 설정은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한국 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여성의 축구 참여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비교 연구 대상을 구체화시켰다. 영국의 The FA(The Football Association)에 따르면 현재 축구는 영국 여성들에게 가장 참여도가 높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The 2005 UEFA Women's Championship은 2만 9천여 명의 관중과 약 11만 명의 팬들의 관심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영국의 여자축구가 초창기부터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던 것은 아니다. 1921년에 The FA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자 축구리그를 금지하였다. 이렇듯, 영국 여자 축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고 현재는 영국의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지에서의 연구는 실제로 영국에서 여성들의 축구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학교 동아리와 지역사회 내의 커뮤니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 축구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특히 대학 여자축구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함께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지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과 한국 간의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비교하고, 구체적으로는 영국 대학의 여자 축구 동아리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우리 학교에서 여자축구동아리의 활성화 방안을 알리는 것과 학교와 지역사회적인 측면에서 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1) 사전탐색조사

인터넷 자료조사,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영국 현지의 대학여자축구동아리 활동현황과 탐사 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기관과 단체 등과 사전 연락을 진행하였으며 현실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더불어 20대 대학생 남, 녀 155명을 대상으로 한국 여성스포츠문화인식에 대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전 탐색조사는 영국과 한국 일반의 스포츠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1)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는 별첨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국의 대학여자축구동아리 활동현황에 대한 현지탐사를 진행하였다.

2) 기관방문조사 및 현지 여자축구동아리활동 체험

① 기관방문 및 여자축구동아리활동

본 탐사에서는 영국의 여자축구동아리 활동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하여 영국대학여자축구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하여 정보를 얻고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여자축구동아리 경기 참관, 훈련참가와 유사종목인 풋살 훈련에 참가하였다. 더불어 여자축구동아리 활동의 중요한 부분인 프리미어리그 경기관람을 통해 영국 여성의 경기관람문화와 훈련 외 활동이 팀원들의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② 심층면접 실시

사전탐색조사에 이용한 양적연구와 더불어 현지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함께 이용하였다. 면접대상자는 방문 기관의 담당자, 방문 단체의 주장 및 코치 등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공원, 대학교, 경기장 등에서 만날 수 있는 영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질문 내용과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시키는 면접 방법인 구조화 면접과 일정한 지침이 없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비구조화면접방식과 더불어 미리 준비한 질문리스트를 사용하되 답변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질문을 추가하고, 질문순서를 바꾸기도 하는 반구조화 면접²⁾으로 진행되었다.

방문기관	방문내용
BUCS (British University & Colleges Sports)	영국의 대학생스포츠를 지원하고 있는 BUCS를 방문하여 단체의 역사와 운영현황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학교여자축구동아리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BUCS League	축구리그의 경우 우천으로 취소되어 관람이 어려웠다. 실내 축구인 풋살 리그 관람을 한 후 경기 참여자, 심판, 관람객 인터뷰를 통해 여성 스포츠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Manchester Stingers WFC	경험과 능력에 상관없이 여성 개인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훈련 참여를 통해 훈련방식을 배워 보았고,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영국의 여자축구와 대학교여자축구동아리에 대하여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Kick & Mix	
Manchester Ladies Futsal	Manchester Ladies Futsal은 11월 20일에 신설된 Futsal 팀이다. 축구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 맞춰 실내에서 할 수 있고, 축구와 유사점이 많은 Futsal 훈련에

2) “면접 [interview]” ,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2004.5.31

	참여하고 훈련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UMWFC 경기 참관	UMWFC는 1군, 2군, 3군 그리고 beginner로 구성되어 있는 규모와 체계가 잡혀있는 대학여자축구동아리이다. 1군의 경기를 관람하고, 코치와 팀원들 인터뷰를 통하여 훈련방식과 여자축구개선점 동아리 운영방식과 지원현황 등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프리미어리그 관람 맨체스터 vs 카디프	경기 관람은 영국 대학교여자축구동아리의 활동 중 하나이다. 경기 관람을 통해 팀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전술이나 축구기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불어 관람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영국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축구 관람문화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①맨유 올드 트래포트 스타디움(맨체스터 국립 축구박물관) ②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아스날축구박물관)	구장 투어와 박물관 투어를 통해 영국 축구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았다. 영국에는 여자축구의 대표적 인물 브랜다 챔페어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으며, 과거 영국의 여자축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여러 전시물들을 전시해놓고 있었다.
공원 및 대학교	방문하는 지역에 있는 공원 및 대학교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여자축구와 대학교여자축구동아리 지원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여자축구에 대한 영국일반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스포츠는 영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축구와 같은 스포츠들은 영국에서 기원하였고, 영국 스포츠문화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스포츠문화는 여자축구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이를 반영하듯이 영국 각 대학 내 여자축구동아리는 정기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친선경기 및 리그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 내적, 외적으로 대학여자축구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 있는 것은 대학여자축구동아리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학 내 비체대 여자축구동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 여자축구동아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자축구동아리에 대한 대학의 제도적·재정적지원이나 사회적 지지기반은 미비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탐사를 통한 영국과 한국의 대학여자축구동아리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여자축구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노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더불어 대학 내 여자축구동아리 운영과 훈련방식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동아리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국의 NGO단체인 BUCS(British University & Colleges Sports)에 대하여 분석 해 볼 것이다.

3. 영국과 한국의 대학여자축구동아리 비교분석

1) 대학교 내 동아리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

영국에서는 대학 내 여자축구동아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본 탐사에서 방문한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릿지대학교, 레스터대학교, 맨체스터대학교 등에서는 다수의 여자축구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한 주에 한번 혹은 두 번의 훈련과 친선경기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축구와 경기규칙이나 진행방식이 유사한 풋살(Futsal)³⁾과 같은 실내스포츠동아리도 활성화되어 있다. 동아리 자체의 운영방식과 훈련방식은 한국과 영국이 유사점을 가지나, 타 학교와의 교류나 리그전의 경우 영국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발한 교류활동에는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BUCS(British University & Colleges Sports)가 주최하는 스포츠 리그가 많은 부분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차원의 노력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각 대학에서는 여자축구·풋살동아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으로 꾸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1) 대학교여자축구동아리 운영, 훈련방식

대학여자축구동아리 운영과 훈련방식에 있어서 영국과 한국이 큰 차이를 가진 것은 아니다. 영국 또한 주장, 부주장, 감독, 회계 등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훈련을 하거나 경기를 개최하는 등 동아리 운영방식은 한국과 유사점을 가진다. 손과 발을 이용한 공간패스 연습, 슈팅, 트래핑 등 여러 훈련에서 비슷한 훈련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국의 여자축구동아리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아리 원들이 직접 동아리 내 친목모임을 만들거나 프리미어리그 관람을 하는 것과 같은 과외활동을 통해 팀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또한 학교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 펍(PUB)과의 연계를 통하여 선수들 간의 유대감을 다졌다.

운영과 훈련방식에 있어서 영국과 한국이 가장 대조되는 점은 타 학교와의 교류의 측면이다. 본 교 비체대 축구동아리의 경우 타 학교와의 교류보다는 팀 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따로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이상 1년에 한 번 건강과학대학이 주최하는 <이화인하나되기축구대회>에서만 다른 팀과 경기를 하고 있다. 2013년 여름에는 이화여대 축구 중앙 동아리인 FC콧이 비체대 동아리 간의 리그전(FC쏘샬, 공유, FC콧, 성대 여우락, 외대 FC홀릭스 참가)을 처음으로 개최하여 교류를 활발히 하려는 노력은 하였으나 영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 측의 지원은 전무하고 경기운동장 상태도 좋지 않아 리그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비체대 동아리 간의 어느 정도 체계적인 리그형식의 교류를 시도한 것은 의의가 있다.

영국의 경우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학 내 다른 팀이나 타 대학과 친선경기를 가지며 이를 통해 팀의 실력을 높이고 팀의 결속을 다진다. 이러한 정기적인 친선경기를 가지는 데에는 BUCS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BUCS리그는 대학 간 연계를 통하여 친선경기, 리그전 등을 개최하며, The FA 소속의 심판을 섭외하는 등 동아리 간 체계적인 경기개최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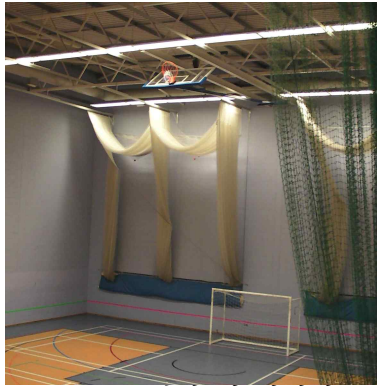
3) 한국어로는 간이축구라고 한다. 풋살(Futsal)은 에스파냐어 또는 포르투갈어로 '축구'를 뜻하는 'futbol'과 프랑스어로 '실내'를 뜻하는 'salon'을 합성한 용어이다. 살롱풋볼(Salon football) 또는 인도어 사커(Indoor soccer)라고도 한다. 5인제를 원칙으로 하며, 1987년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이 제정되었다. 사이드 라인은 60~80m, 골라인은 30~40m이다. 팀 인원은 5인제 외에 정규 축구의 11명보다 적게 임의로 축소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간이축구 [Futsal, 簡易蹴球]”, <두산백과>, 두산백과, 2013

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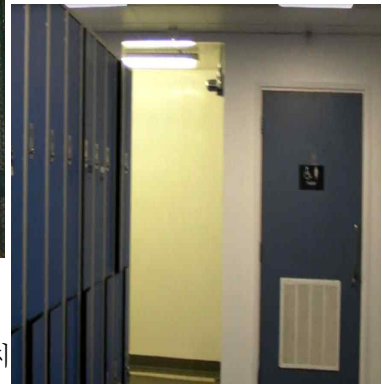
(2) 훈련공간 및 시설측면

① 영국

대학 별로 어느 정도의 편차는 존재하나 여자축구동아리 지원에 있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슷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축구경기 시에 가장 중요한 구장의 경우 신청이 자유롭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잔디구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여러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실내 체육시설도 다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또한 샤워시설 탈의실이 구장과 멀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훈련 후 샤워를 하거나 탈의를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다.



< 잔 디 구 장 >
< 체 육 관 >



<샤워 및 탈의실>

여자축구동아리의 경우 대부분의 훈련과 경기가 대학 내 위치한 잔디구장에서 진행되며 연습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프리스턴대학교의 여자축구동아리원(Laura, Sports Development)은 심층면접에서 공간사용의 어려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학 내에 공 찰 공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연습할 곳을 찾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국의 여자축구동아리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시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골대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스포츠동아리 또한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축구가 아닌 실내스포츠인 풋살의 경우 실내 체육관예약을 통해 연습이 진행된다. 간단한 예약절차를 거치면 대학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하다. 또한 실내체육관에 이동식 골대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필요시 설치, 철거가 가능한 농구골대와 암벽등반과 같은 시설물들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② 한국(이화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대학의 경우 자유롭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영국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학교 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체육관홀A, B, 학관 레크레이션홀, 스포츠타

등이 있으나 체육관 혹은 시설물 파손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약이 어려워 비체대 축구동아리는 주로 학 내 스포츠타랙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타랙과 가깝게 위치한 샤워장이나 탈의실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마친 후 화장실에서 탈의를 하고,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 몸을 씻고 있는 상황이다.

각 축구동아리-공체스터유나이티드(공과대학), 경영마드리드(경영대학), FC쏘샬(사회과학대학), FC콕(중앙동아리)-주장 심충면접을 통해 알아본 결과 공간예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간예약 시 다른 동아리와 경쟁해야함은 물론, 체육대학학생들과 공간예약이 겹칠 경우 비체대 동아리는 먼저 공간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타랙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13-2학기 신설된 경영마드리드(경영대학)의 경우 학기 초 연습공간이 없어 연습에 많은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동아리에서 연습에 지장을 주는 주요요소로 공간문제를 꼽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스포츠타랙이 잔디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축구기술을 배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강력한 수비기술인 슬라이딩 태클의 경우 현재 스포츠타랙의 흙 구장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 흙 구장의 경우 잔디구장보다 축구 경기 시 선수들의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잔디구장은 보다 안전하고 다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공격과 수비가 가능하나 흙 구장은 부상의 위험이 보다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운영이 불가능 하다.

(2) 재정적 지원

① 영국

영국 비체대 대학여자축구동아리는 다양한 방면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방문했던 대학 모두가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원금은 외부활동비, 장비구입비, 코치비, 축구 관람비 등 동아리 운영 전반에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맨체스터	레스터	옥스퍼드	캠브리지	프리스턴
지원항목	코치비, 동아리지원금, 백스리그지원	동아리지원금, 백스리그지원, 펍(PUB)연계	동아리지원금, 백스리그지원	동아리지원 금	전문선수 장학금지원, 동아리지원 금

<표1. 영국 대학 별 지원항목>

맨체스터 대학교의 UMWFC의 경우 동아리비 지원과 더불어 대학 차원에서 코치영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치의 임금 또한 대학에서 지급되고 있다. 레스터 대학의 경우 동아리비 지원과 더불어 학교 근처 펍(PUB)과의 연계를 통하여 스포츠 동아리들이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더불어 영국 내 대학스포츠동아리를 연결해 주고, 경기개최를 돕는 BUCS리그 등록을 위해 일 년에 동아리 당 300파운드(한화 약 54만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타 대학 여자축구 동아리 간의 활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대학 내의 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를 돕는다. BUCS에 지원된 금액은 심판 섭외 비, 경기운영비 등에 쓰인다.

② 한국

한국의 여자축구동아리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운영비의 상당부분이 코치섭외비와 장소섭외비 등에 쓰이기 때문에 축구공, 유니폼, 축구화 등의 경우 개인 사비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훈련 외 활동인 K리그관람이나 기타 과외활동의 경우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참여하거나 회원들의 사비로 참여하고 있다.

대학 내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중앙동아리인 FC폭은 학생회비에서 동아리 지원을 받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축구동아리는 각 단과대학 행정실과 단과대학학생회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지원 금액이 연도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동아리를 운영에 혼란이 있다. 공과대학, 경영대학 축구동아리의 경우 단과대학 행정실, 학생회의 동아리지원금이 전무한 실정이다.

각 동아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점은 단과대학별로 통일된 동아리지원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각 축구동아리 운영진이 학교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과대학 별로 동아리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2) 사회적 지원 : BUCS(British University & Colleges Sports)

	운영체계 (step)	설명
The FA (professional)	Senior England Professional	Women Super League X2 leagues
	England U23's FA	100% students
BUCS (amateur)	Universities World games - Great Britain(GB)	Kazan2013 select team 30 players
	Comprehensions (BUCS Leagues)	BUCS Leagues LUSL(London University Sport League) 176 Female Team
	Intro Murel Football	Jeam Twenty Three (new) 2013-2017 5000 new girls playing
	Mars just play The FA (basic step)	Recreational Football 2000 Female participants (delivered by students)

<표2. BUCS 운영체계>

BUCS(British University & Colleges Sports)란 영국 내 스포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서, 위와 같은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에 제시된 운영체계는 여자 축구만을 위한 것이다. 축구, 서핑, 승마, 럭비 등 50개가량의 스포츠 종목이 이와 같은 체계를 가지고 운영된다. 각 대학들은 모든 종목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대학마다 몇 팀을 BUCS와 연계하느냐에 따라 대학에서 지급하는 액수가 다른데 일 년에 약 300 파운드가 평균적이다.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에 따라 프로그램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수강이후 다음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즉, 팀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축구분야에서는 176개의 여자팀, 544개의 남자팀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기본단계에서 시작한 선수들도 전문적인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이 프로그램들은 상

당히 큰 구조 아래에 놓여있고 영국 축구 협회 (The Football Association, FA)와 연계를 통하여 영국 축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훈련제공과 영국지역 전체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동아리들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친선경기를 신청할 수 있다. BUCS에서는 친선경기를 위해 각 대학을 연결해줄 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 협회 소속의 전문심판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BUCS는 대학교 내의 스포츠동아리 활성화와 더불어 영국 내 스포츠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BUCS 관계자는 여자축구동아리와 여자축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한다. 우리는 후원에 매우 의존을 하는데 이것은 회비로 바로 연결될 때도 있다. 더 많은 후원금이 있으면 더욱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또한 여자 프로 선수의 연봉이 매우 작다 그래서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다.

4. 이화여자대학교 축구동아리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현재 학교에서 활동 중인 중앙 동아리와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재정적 지원, 제도적 지원, 동아리 운영, 훈련 및 정기연습에 관한 항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팀별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축구 동아리 운영현황

동아리 운영현황		공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과대학)	경영마드리드 (경영대학)	FC쏘샬 (사회과학대학)	FC콕 (중앙동아리)
재정적 지원	학교	없음	없음		특별지원금 25만원
	학생회	없음	없음	약10만원	
제도적 지원		동아리방 없음	.	.	동아리방 없음
		체육관, 레크레이션 홀 이용 어려움			
동아리 운영		임원, 코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등	주장, 부주장, 감독, 회계	공동대표 (2명) 총무, 홍보국장, 기획국장
훈련 및 정기연습		주 2회	매 주 목요일	매 주 수요일	매 주 화요일

<표3. 이화여자대학교축구동아리 운영 및 지원현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과학대학 소속 단과대학동아리 이외의 축구동아리에는 학교나 학생회의 재정적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동아리들은 졸업생들의 기부금이나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당 단과대학과 학생회에서 뚜렷한 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FC쏘샬도 지원 절차가 뚜렷하지 못해 겪는 혼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동아리방이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활용과 관련된 학교의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FC쏘샬의 경우 동아리방이 있으나 접근성이 낮은 생활관에 위치하고 있다. 공유와 FC콧의 경우 이마저도 없기 때문에 연습에 필요한 축구공(매 훈련에 최소 10개 필요), 콘, 축구화, 신 가드 등을 팀원들이 각자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 더불어 모든 동아리가 훈련 시 스포츠폰트랙 외 체육관 홀이나 레크레이션 홀 등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동아리운영체계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중심으로 동아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홍보부장이나 기획부장을 두기도 했다. 훈련의 경우 매 주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화인하나되기축구대회> 이외의 비정기적 외부대회는 매 번 팀원들의 회의를 통해 출전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 방안

(1) 동아리 차원 활성화 방안

① 정기적 교내 리그 개최를 통한 교류확대

현재는 건강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이화인하나되기축구대회>가 유일한 교내리그이다. 2013년 여름 FC 콧이 <비체대생여자축구리그전>을 주최했지만 비체대생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대회는 1년에 한 개가 존재한다. 주 1회 타 여자축구 동아리들과 정기적인 친선을 가지는 영국 대학 여자 축구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정기적으로 가지는 친선경기는 동아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실력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종목을 운동하는 다른 동아리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는 외부대회 출전이나 지속적인 동아리 운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팀 대항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팀원들 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어 동아리 회원들의 소속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친선 경기의 시발점으로 2월 28일 교내 축구동아리들과 친선경기를 가지고자 한다. 현재 각 동아리 주장들과 컨택이 완료되었으며 다수의 동아리가 참가의사를 밝혔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해외탐사를 다녀온 자료들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동아리 운영진들에게 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단한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친선 경기의 시발점으로 2월 28일 교내 축구동아리들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교내 비체대 동아리 주장들과 컨택 후 참가의사를 밝힌 FC 콧, FC 경마, FC Social 세 동아리가 경기를 진행했다. 또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해외탐사를 다녀온 자료들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동아리 운영진들에게 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단한 보고회를 가졌다. 현재 친선 이후에도 sns를 통해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4월에도 FC Social 과 FC 경마의 친선 경기가 있을 예정이고 다른 동아리들 간에도 친선경기가 꾸준히 잡히고 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약학대학 축구동아리에까지 교류의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동아리들 간의 소통 뿐 아니라 축구 활동 역시 활발해 지고 있다.

② 풋살(Futsal) 활용

본교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치 않음을 감안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는 풋살을 활용하는 것도 축구 동아리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풋살은 작은 경기장에서 5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경기하는 미니 축구로 무엇보다 팀워크, 정확한 패스, 빠른 공수전환, 위치 선정 능력을 필요로 한다. 축구를 할 때 필요한 능력들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 본교 운동장 뒤편을 활용하여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은 스포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자체적으로도 풋살을 활용해야 한다.

(2) 학교 차원 활성화 방안

① 제도적 지원

a. 교내 : 잔디구장 및 샤워 탈의시설 설치, 체육관 사용 활성화

교내에서 축구를 연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은 하나뿐이며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 약 5개의 팀들이 나눠서 쓰고 있다. 그마저도 운동장에서 다른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운동장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더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는 연습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운동장이 흙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습 시에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부상위험이 크다. 따라서 한정되어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공간확보, 인조잔디 설치 등 제도적인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훈련 이후 샤워를 하거나 탈의를 할 수 있는 샤워장 설치도 필요할 것이다.

본교 체육관의 경우 학교 행사와 체대생이 이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의 시간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렇게 비어 있는 시간에 타 단과 학생을 비롯한 축구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비어있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연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동식 골대나 조립식 골대가 갖춰진다면 더욱더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시간 개방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 우려가 된다면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축구 동아리들에게 레지스터 카드를 발급하여 제한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 교외 : 외부 구장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학교 지원 확대

교내에 있는 공간들만으로는 연습 및 경기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다. 우선 체육관에서 풋살(Futsal)이나 패스, 슈트 연습 등은 진행할 수 있겠지만 좁기 때문에 실제 경기 준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교의 운동장 크기는 실제 경기 운동장들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또한 잔디가 심어져 있지 않은 흙 구장의 경우 비가 오면 땅이 파이고 진흙 밟이 되어 연습과 경기 진행이 힘들고 부상의 위험 역시 크다.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도 잔디 구장들에 비해 진행 할 수 있는 훈련들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교 운동장이 아닌 외부 구장을 정기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면 연습 및 경기 공간 확보와 함께 동아리들의 축구 실력을 향상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장정보	위치	연락처
서대문구돌산구장	서대문구립인조잔디구장 이용요금:1회 55,000원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10-305	02-376-3155
난지물재생센터 인조잔디축구경기장	인조잔디축구장, 난지물재생센터에 단체등록 후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전자추첨방식) 이용요금:무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현천동)	02-300-8508~9
창천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현재 외부단체 이용 어려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3-1	02-715-4667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이용요금:4시간 50000원(2012년4월 기준)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47	02-392-6176

<표4. 외부구장 정보>

하지만 외부구장을 동아리 자체에서 컨택하고 정기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창천초등학교 운동장의 경우 외부인은 사용이 불가하여 동아리 자체에서 컨택 하고 사용허가를 받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또한 구장 대여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렴한 구장은 대부분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 외곽이거나 이미 예약이 다 차있는 경우가 많아 구장 대여 및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외부 구장들과 제휴를 맺어 신청 절차를 수월하게 하거나 일정 시간대에 교내 동아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구장 대여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교내의 부족한 공간 활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재정적 지원

현재 본교의 각 단과대학 소속 축구동아리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축구 동아리를 운영 할 때에는 매 연습 시에 소모되는 생수와 주기적으로 사야하는 공과 장비들, 그리고 외부 대회 참가비, 구장 대여비 등이 꼭 필요로 하다. 이들을 합하면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의 경우 외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동아리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거나, 졸업 선배들의 기부금을 받아 동아리를 운영하는 방식이 많았다.

이처럼 제대로 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명확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동아리가 대부분이고,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받는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의 경우에도 지원 절차에 대한 혼란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경우 동아리 운영진조차도 동아리 지원을 위해 단과대학에서 편성한 일 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해 단과대 행정실에서 인정하는 항목에 한해서만 환급을 받는다고 했다.

반면 영국의 대학 여자축구 동아리의 경우 학교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했다. 공을 비롯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부터 코치의 임금, 더 나아가서는 친목도모와 정보공유의 장이 될 수 있는 펍과 제휴를 맺는 방법들을 통해 동아리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탄탄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동아리 회원들의 금전적 부담도 줄어들고 동아리 활

동에만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이다.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비 구입비는 물론이고 기타 활동비 역시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동아리의 경우 외부 대회 출전 시 필요한 참가비와 식비, 교통비 등은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회비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코치의 임금 역시 지원을 받는다면 개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유니폼들과 개인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경기 관람 비 지원이다. 체육대학이 아닌 타 단과대학 학생들이 축구 동아리에 들어오는 경우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지속적인 참여 의지 보다는 친목과 관심이 대부분이다. 중앙동아리 FC쪽의 경우 학기 말이 되자 동아리 인원이 부족하여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따라서 축구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올리고 친목을 다져 장기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축구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5. 기대효과 : 축구동아리 활성화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 증진

스포츠 활동은 경쟁과 협동의 기회를 주어 그 속에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하고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의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여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게 하는 의도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⁴⁾ 특히 축구는 경기를 참여함에 있어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 보다 팀원들 간의 신뢰감과 소속감을 잘 기를 수 있는 스포츠이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화과정이 대학생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 내 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차원의 노력과 학교의 지원노력은 대학에 대한 소속감 증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효과가 실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 동기의 측면과 결과의 측면에서 축구동아리 활동이 대학에 대한 소속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 체대 축구 동아리 회원 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자의 약 59%가 축구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약 33%가 친목(대인관계)을 위해 동아리에 가입했다. 과반 이상의 동아리 회원들이 축구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한다. 관심에서 출발하여 활동의 계획과 운영이 대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활동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대학생 동아리 활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동아리에 소속됨으로써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며, 또래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⁵⁾

설문 조사 중 현재 동아리 내에서 느끼는 소속감은 ‘매우 높다’가 42%, ‘높다’가 38%로 과반 수 이상의 동아리 회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 이러한 축구 동아리 참여가 학교에 대한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가 40%,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가 51%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교내 축구 동아리 활동이 동아리 뿐 만 아니라 대학교에 느끼는 소속감 역시 향상시켜준다는 자료이다. 스

4)5) 김옥주, 안재오(2012), 대학생 스포츠활동의 정보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 및 유대감과 신체적 만족간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한국스포츠학회, 2012, p.13

포츠 동아리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 단체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과 협동적이면서도 경쟁적 관계를 맺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책임성, 자율성, 성취감, 사교성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그 결과로 학교생활 적응 능력이 향상되며 대학 애착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⁶⁾

여자대학교의 경우 유대감이 부족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도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면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서 힘들다는 고민들이 간혹 보인다. 축구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본교 학생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 역시 높아질 뿐 아니라 자아성취감과 사회적 적응력이 향상되는 등 학교와 학생들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길이 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영국과 한국의 여자축구동아리 운영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화여자대학교 내 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영국과 한국이 동아리 내부 운영방식이나 훈련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나 동아리 간의 정기적인 교류면에서는 영국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지원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영국의 경우 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사회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 내 대부분의 대학은 축구동아리 활동을 위한 훈련시설제공과 더불어 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영국 내 비영리단체인 BUCS는 훈련제공, 정기적인 리그개최, 친선경기개최 등을 통하여 대학 내 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여자 축구동아리는 과거에는 전혀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현재에도 대학교 내에서 비체대 축구동아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활동 중인 대학교 여자축구동아리들은 학교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원의 부족, 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축구동아리를 위한 리그전이나 친선경기가 드물기 때문에 타 여성축구동아리와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한국여자축구동아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내 여자축구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당국의 지원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현재 여자축구동아리는 대부분 단과대학소속으로 통일된 재정적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단과대마다 지원체계가 다르고 지원 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축구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단과대학과 대학차원의 시스템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축구동아리 훈련을 위한 기본적인 교내 공간 확보와 기존에 있는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교외 구장과의 연계를 통한 축구동아리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동아리 차원의 홍보 및 교류확대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동아리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정기적인 리그전 개최나 친선경기 활성화하고 동아리 원들 간의 유대감을 높여야 한다. 2월 28일 해외탐사를 바탕으로 개최한 <이화여자대학교 비체대 축구동아리 친선전>은 학내 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친선전에는 경영마드리드, FC쏘

6) 김옥주, 안재오(2012), 대학생 스포츠 활동의 정보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 및 유대감과 신체적 만족간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한국스포츠학회, 2012, p.13

살, FC콧이 참가하여 동아리 간 친목도모를 하였고, 해외탐사에 대한 간단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와 같은 교류를 시작으로 현재에도 동아리 간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동아리의 활발한 교류가 교내 여자축구동아리가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여자축구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와 학교의 노력은 이화의 학생들이 축구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축구를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이화인들이 직접적으로 축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기제가 될 것이며, 학교 내 여자축구동아리와 더불어 스포츠동아리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동아리 참여자의 학교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7.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물

- 조은정(2011), 「여자대학 축구동아리 선수의 하위문화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석사 학위논문
- 정홍철(2008), 「대학축구동아리 참여자의 참여 동기 및 참여정도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옥주, 안재오(2012), 대학생 스포츠활동의 정보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 및 유대감과 신체적 만족간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한국스포츠학회, 2012, p.13

2) 인터넷 사이트

- 서울특별시 환경홈페이지, <난지물재생센터 체육시설 이용안내>, <http://environment.seoul.go.kr/archives/5392>, 2012.05.21
- FC서울 홈페이지, <돌산구장정보>, <http://academy.fcseoul.com/main.asp>

*별첨 설문조사 질문 및 결과

1. 당신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이상

2. 다음 남학생의 전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공과대학 ②사범대학 ③사회과학대학
④예술대학 ⑤인문과학대학 ⑥자연과학대학 ⑦체육대학 ⑧알수없음

3. 다음 여학생의 전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공과대학 ②사범대학 ③사회과학대학
④예술대학 ⑤인문과학대학 ⑥자연과학대학 ⑦체육대학 ⑧알수없음

4. 축구하는 여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가까운 사람은 어느 쪽 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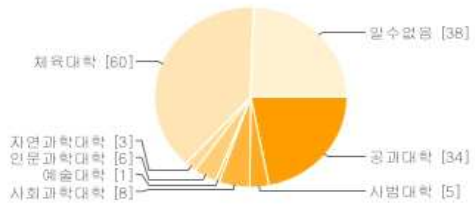


①왼쪽 ②오른쪽

5.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스포츠 종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1개 이상)

- ①요가 ②농구 ③발레 ④유도
⑤피겨스케이팅 ⑥아이스하키
⑦체조 ⑧축구 ⑨기타()

6. 참여해 보고 싶은 스포츠 종목을 모



두 선택하여 주십시오(복수 응답가능)

- ①요가 ②농구 ③발레 ④유도
⑤피겨스케이팅 ⑥아이스하키
⑦체조 ⑧축구 ⑨기타()

7.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남성 ②여성

8-1. [남성응답자만] 당신이 여성이라면 하고 싶은 스포츠 종목은 무엇입니까?(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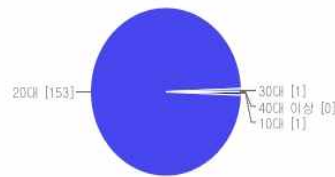
- ①요가 ②농구 ③발레 ④유도
⑤피겨스케이팅 ⑥아이스하키
⑦체조 ⑧축구 ⑨기타()

8-2. [여성응답자만] 당신이 남성이라면 하고 싶은 스포츠 종목은 무엇입니까?(3가지)

- ①요가 ②농구 ③발레 ④유도
⑤피겨스케이팅 ⑥아이스하키
⑦체조 ⑧축구 ⑨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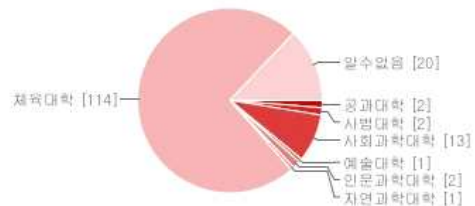
3) 설문결과

1. 당신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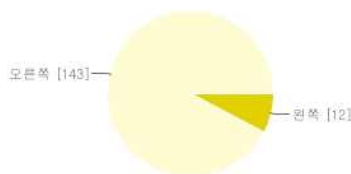


2. 남학생의 전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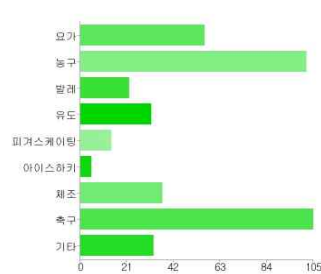
3. 여학생의 전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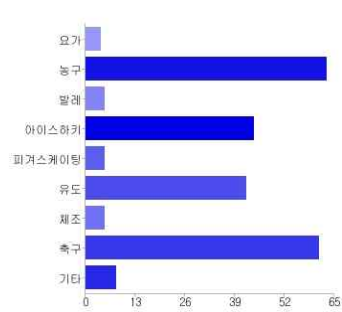
4. 축구하는 여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가까운 사람은 어느 쪽 입니까?



5.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스포츠 종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1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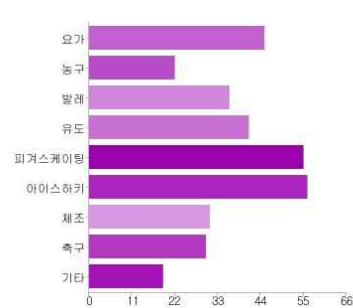


요가	56	14%
농구	102	25%
발레	22	5%
유도	32	8%
피겨스케이팅	14	3%
아이스하키	5	1%
체조	37	9%
축구	105	26%
기타	3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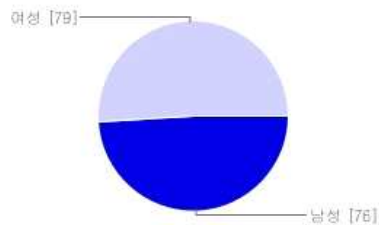
요가	4	2%
농구	63	27%
발레	5	2%
아이스하키	44	19%
피겨스케이팅	5	2%
유도	42	18%
체조	5	2%
축구	61	26%
기타	8	3%

6. 참여해 보고 싶은 스포츠 종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복수 응답가능)



요가	45	13%
농구	22	7%
발레	36	11%
유도	41	12%
피겨스케이팅	55	16%
아이스하키	56	17%
체조	31	9%
축구	30	9%
기타	19	6%

7.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8-1. [남성응답자만] 당신이 여성이라면 하고 싶은 스포츠 종목은 무엇입니까?(3가지)

8-2. [여성응답자만] 당신이 남성이라면 하고 싶은 스포츠 종목은 무엇입니까?(3가지)